



제목	중앙아시아미술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삼화출판사
발행일	1986. 8. 1.
저자	국립중앙박물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76
ISBN 또는 ISSN	200-3091000513

내용 요약

중앙아시아에서 형성된 미술문화의 성격은 지역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서가 교류하는 가운데 생성된 문화적 성과이며, 인류학적 견지에서는 정주족(定住族)과 유목족(游牧族)이 서로 격돌하면서 얻은 조형적 산물이다. 미술에 있어서 ‘고도(孤島)’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경우처럼 그 말의 의미가 실감나는 사례도 드물다. 기원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는 민족의 이동이나 전쟁과 같은 문화전파의 일반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교역이 또한 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로에 의해서 상호 이질적인 문화 형태가 뒤섞여 혼성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한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이러한 외래문화의 충격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특유의 조형미를 개발하여 발전시킨 점이 중앙아시아 미술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제각기 자기의 개성적인 미술형식을 창출해 내었다. 이 책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벽화와 조각, 도용, 도자기, 장신구 등 127개의 도판과 해설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미술에 대한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책에서 소개된 유물들을 통해 중앙아시아미술은 여러 민족이 오랜 시간동안 그들의 독특한 미술형식, 테크닉, 주제 등을 상호 흡수·개발하는 가운데 동과 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정통과 세속의 다양한 미적 요소를 잘 조화시킨 복합미술로 정의할 수 있다.